

2024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최종 선정결과 안내

2024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지원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장르별 심의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및 토론심의를 통하여, 예술적인 완성도, 구체적인 창작계획과 수행 역량, 장애예술계에 기여하는 동시에 장애예술로서의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37개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성화 및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의위원 명단

연번	구분		이름	현직
1	시각		이동엽	시각 작가
2			정시우	큐레이터
3			최희승	큐레이터
4	연구		문영민	장애예술 연구자
5			변재원	소수자 정책 연구자
6			함현희	복합문화공간 공상온도 대표
7	공연예술(1)	연극	호종민	연극 배우
8		무용	김용우	한국장애인무용협회 대표
9		다원	김민관	아트신 편집장
10	공연예술(2)	음악	김동현	성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
11			배은주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12		전통	김성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가치확산팀 팀장
13	문학	문학	김뜰	문학 작가
14			방귀희	사)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회장
15			차희정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강사

☐ **선정자/단체 및 지원결정액** ※해당 결정액은 회계검증수수료와 창작활동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분야	프로젝트명	신청자/단체명	지원결정액(원)
시각	울림만 있다면	이기연	18,000,000
	인연: 두 여자	정은혜	18,000,000
	교차로(가제)	홍세진	16,000,000
	자동차, 결혼식, 방송아나운서 그리고 신문 일러스트 시리즈	정종필	12,600,000
	자기의 한 고트머리-손	김은정	14,000,000
	구슬유희	윌헨즈-평범한작업실	16,000,000
	랍국 속으로 IntotheRAGUK	잇자잇자사회적협동	16,000,000
	2024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박미	11,000,000
	전시 <초대장 -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달팽이네트워크	14,000,000
	자연아 놀자	송상원	14,000,000
[시각분야] 소계			149,600,000
연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친족: 공연 <일+일+일=삶>을 중심으로	최바름	8,000,000
	"접근성" 아티스틱 리서치랩	김재아	12,000,000
	등글고 모나게 모여앉기	프로젝트Lowkey	12,000,000
	장애예술의 표현과 윤리성에 관한 연구	이은지	12,000,000
[연구분야] 소계			44,000,000
연극	시집가는 날 (가제)	극단오	19,000,000
	(가제)들리는 여름	프로젝트레디메이드	18,600,000
	춤추는 립스틱 창작 프로젝트	김진옥	17,000,000
[연극분야] 소계			54,600,000
무용	SALIDA, 기후위기	김희량	17,000,000
	ㅁ서 ㅁ어 ㅁ	아라(A.R.A)	17,000,000
[무용분야] 소계			34,000,000
다원	꽃대를 향하여 : 모방의 기술	김재은	17,000,000
[다원분야] 소계			17,000,000
음악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II	문화예술단체 가온	16,000,000
	김상헌 피아노 독주회 - Paraphrase	김상헌	9,000,000
	김지선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시리즈 - To B	김지선	10,000,000
	지체장애 피아니스트 강대유와 함께하는 실내악 시리즈 I 집시의 노래	강대유	8,000,000
	농문화 기반한 음악 제작	김지연	15,000,000
	2024 아트위캔 앙상블콘서트 [Special Harmony]	(사)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	15,000,000
	[원손 피아니스트 이훈의 첫 번째 피지컬 앨범 발매 프로젝트]	이훈	12,600,000
[음악분야] 소계			85,600,000
전통	피아노 병창 최준 - 2024 흥보가 興甫歌	최준	10,000,000
	쌍고수와 함께 하는 우동육의 '판소리 사계'	우동육	5,200,000
[전통분야] 소계			15,200,000
문학	김지수 희곡집 '이웃들'(가제)	김지수	10,000,000
	치파오	김경숙	10,000,000
	가제) 수탉, 그루	한상식	10,000,000
	최명숙생애첫수필집-마음의침표하나	최명숙	10,000,000
	여우에 홀리다	김희철	10,000,000
	휠체어 타고 영화감독	김홍열	10,000,000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안진상	10,000,000
	풍선과 대피소(가제)	김학중	10,000,000
[문학분야] 소계			80,000,000
합 계			480,000,000

※ 예비선정자는 기존 선정자 사업포기 또는 사업 취소 발생 시, 개별 안내합니다.

□ 분야별 심의총평

*시각 분야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수준 높은 창작 활동을 보이는 지원자들이 많았다. 다만 포트폴리오 제출 시, 지원자가 새롭게 시도하는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설명이 시각 자료로 첨부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일부 지원자의 경우, 장애예술인의 주도적 활동과 참여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예산계획에 있어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에 부합하는 편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올해는 평면 작업들의 지원이 집중되었던 예전과 달리, 매체적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작업 수준이 높았지만, 전시 기획과 구성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경우가 있어 아쉬웠다. 본 지원 사업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추후 지원자들이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장애예술인이 비장애인이나 단체와 협업하는 경우, 단순 협업을 넘어서 당위와 방법론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매체로 작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가 인상적이었지만, 매체를 활용함에 있어 단순히 작업을 디지털로 재현하는 것에 머물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회화, 조각, 미디어, 공예, 설치, 드로잉 등의 매체를 구사하는 다채로운 작가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또 VR, 3D 프린터 등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작업을 접목하는 경향도 보였다. 장애예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은 물론 새로이 이름이 알려진 이들이 지원하는 모습을 통해 본 지원 사업이 장애예술인 사이에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실험적인 작업, 장애예술 자체에 대한 고민이 담긴 기획, 다양한 작가들이 함께하는 기획전시의 수는 적다는 인상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사업의 합목적성과 실현 가능성, 예산 편성의 합리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지원 사업이 처음 지원하는 장애예술인은 물론 다년 간 지원하는 장애예술인들 모두의 예술 활동과 비전을 위한 기금이 되기를 바란다.

*연구 분야

-연구 분야의 경우, 지난 몇 해간 진행되어 온 배리어프리 작업들의 경계를 확장하여 개념과 시공간을 확장하거나, 장애예술인의 정체성과 관계성을 탐색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질문들을 아카이빙하는 작업 등 공공성과 시의성을 담보하는 흥미롭고 다양한 사업이 지원하였다. 그 중 '연구'로서의 의의와 가능성이 있는지, 장애예술인 발굴과 지원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지 등도 함께 살펴보았다. 나름의 분명한 의의와 가치가 있더라도 '연구'로서의 목적이나 진행방향이 불명확하거나 장애예술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여지가 적은 작업도 있었다.

-접근성에 관한 연구들에서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업 등을 통하여 둘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접근성에 관한 연구는 간접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전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양성과 인식개선에 대한 연구는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가 공공성과 시의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독창성과 구체성(사업계획, 예산계획)이 다소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 아쉬웠다.

-예술이 '창작', '비평', '연구'의 세 축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연구 분야 지원을 통해 진행되는 작업들이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리라 생각된다. 이번 연구 분야에서 나타난 지원 경향성은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첫 번째 경향은 '독자의 다양화'이다. 창작 예술이 그러하듯, 연구 분야에서도 결과 발표는 관객과의 소통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 분야 지원자들은 미래의 장애예술인까지 관객으로 염두에 두는 확장성을 보였다. 두 번째 경향은 '예술과 사회의 적극적 교류'이다. 지원자들 대부분이 예술이 사회에 전할 수 있는 비판적인 함의와 선한 영향력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 번째 경향은 '다학제적 접근'이다. 지원자들은 인류학, 정신분석학, 사회학, 사학, 비평학 등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함께 염두에 두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여러 학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며, 위와 같은 경향을 통해 장애예술에 관한 연구의 독자적인 위치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장애예술은 피상적 수준의 재현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애예술의 힘은 세상의 질문을 뒤집는 데 있다. 장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장애인의 몸짓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사회에 새로운 기준을 제공하는 척도로 작용한다. 이러한 고민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창작현장에서 출발한 질문을 사회로 매개하는 연구자들이 더 늘어나기를 바란다.

***공연예술1(연극, 무용, 다원) 분야**

-주제적 차원에서 장애와 페미니즘의 연결, 소외된 자의 경험으로 세계를 다시 보는 경우 등이 인상적이었다. 형식적·매체적인 차원에서는 배리어프리에 대한 질문을 통해 다른 매체와 연관된 경험을 도출해내려는 시도들이 인상적이었다. 테크놀로지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주안점으로 살폈다. 지원자가 장애당사자성을 크게 가지지 않은 경우에도, 장애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예술인을 이해하고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끌어내려는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반면 장애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강조되지만,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나 장애에 대한 관점과 형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세부 분야인 연극, 무용, 다원의 고유성과 특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몇몇 지원 사례가 있었다. 다원 분야의 경우 여러 매체와 영역이 결합되거나 상호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원적인 면모를 보이는 작업이 많아 아쉬웠다. 장애예술이 가진 다양성과 다른 사유가 다원 분야에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지원자들이 자신의 작업이 다원 분야로 나아갈 가능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연극 분야에서 장애, 여성, 성, 주변인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다룬 작품들이 많았다. 장애인의 삶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동시에 무대 미술을 활용하여 완성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돋보였다. 다만 일부 지원자들의 경우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었다. 작품 완성도와 대중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획이 더 필요할 것이다. 다원 분야에서는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과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새로운 시도가 인상적이었지만, 단순히 장르 간 결합만으로는 작품 완성도를 높이기에는 부족해보였다. 장르 간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통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완성도 향상을 기대한다. 무용 분야에서는 장애와 몸에 대한 움직임을 탐구하며 보장구를 창의적 오브제로 활용한 경우나, 영상 및 조명 기술에 기반한 무대 효과 활용이 돋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지원자 중 일부는 마케팅과 지속 가능한 활동에 관한 계획도 기술하였는데 긍정적으로 보였다. 다만 작품 구성과 안무 방법에 대한 설명 등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장애예술인의 중심적 역할과 작품 내 위치, 장애 유형과 정도의 균형적 배합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더욱 필요해지리라 생각한다.

***공연예술2(음악, 전통) 분야**

-역량 있는 장애예술인, 비장애예술인들 간의 협업을 통해 관계성·활동성 확대·역량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경우와 생활예술로서의 장애예술 프로젝트들의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예술인들의 예술적·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기획의 결과가 예술인으로서의 우수성을 보여주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비장애예술인들과의 협업이 장애예술계를 더욱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

-지원자들이 자신들의 예술적 방향에 대한 고민, 또 자신들의 창작이 장애예술계에 미치는 영향과 장애예술생태계에 대한 효과에 대해 더 고민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원자들이 지원금 신청금액의 규모의 적절성과 예산계획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고민하기를 바란다.

-지원자들 중 장애인의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음악적 연구의 깊이가 부족한 경우를 다수 확인하였다. 본 지원 사업의 취지는 장애예술인들의 예술세계의 확장과 진보라고 판단되어, 음악적 탐구와 노력 등을 토대로 지원 내용을 심사하였다.

-클래식 분야에서는 수월성, 예술적 감동이 기대되는 지원이 눈에 띄게 많았다. 또한 예술적 활동이 작품 완성도를 넘어서 장애예술의 한계를 넘나드는 미학적 시도가 될 수 있어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또 농문화에 대한 작품도 눈에 띄었다. 전통분야에서도 우수성이 돋보이는 지원자가 있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내용 작성이 부족한 지원자들이 많이 확인되어 아쉬웠다.

***문학 분야**

-장애예술인들의 자전적 경험과 소회를 담아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작품들이 많았다. 이를 통해 신체적인 장애나 어려움은 예술에 있어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또한, 장애예술인이라고 해서 장애를 소재로 하는 작품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창작활동을 해낸 지원자들이 많은 점 또한 장애예술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다만 지원자들의 사업계획을 살펴본 결과, 일부는 무성의하게 작성된 것들이 있었다. 또한, 일부 지원자들의 경우 장애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장애예술인이라는 정체성 없이 지원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장애 속에서도 오로지 문학으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지원자들이 있어 반갑고 고마웠다. 좋은 작품과 작가들을 만날 수 있어 뿌듯했다

-지원자들의 작품들은 대개 고른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었다. 시의 경우 은유를 통한 시적 형상화, 소설과 동화의 경우 입체적 성격과 갈등의 발생과 해소 등의 과정이 설실하게 재현된 것을 확인하였다. 지원자들의 작품이 이처럼 문학의 형태를 갖춘 창작물이었기에 평가의 기준은 성취의 정도를 가능하는 것이 되었다.

-시의 경우 이미 익숙한 정서와 주제를 반복하거나 표면적 감상에 치우친 점 등은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소설과 동화 등 서사갈래 작품의 경우 전개와 긴장감과 박진감, 갈등의 개연성 등도 함께 살폈다. 특히 장애와 장애인이 소재나 제재, 주자가 된 경우, 장애에 대한 '인식' 정도를 깊이 검토하였다. 감정적 대응이나 인식 등을 넘어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천착이 확인되는 글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장애인문학의 독창성이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원자들이 제출한 작품들은 대개 장르가 시였다. 장단편 소설, 동화, 동시, 희곡 등도 있었지만 소수였다. 지원 작품이 특정 장르에 편중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문학 창작의 지향이 재빨이나 장애 극복이 아님을 거듭 확인하며 장애인문학이 문학계에 던지는 담론과 창조적 사고와 인식의 정도가 심화,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원자들의 창작 열정에 존경을 표한다.

지원사업 선정자 향후 일정안내

☐ 선정자 간담회

-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

※ 상세 사항 4월 첫 주, 선정자 대상 개별 연락 예정(수어통역, 문자통역 제공 예정)

- 내용

- 2024년 지원금 운영·관리 절차 및 집행요령 안내
- 2024년 지원금 전용 관리 계좌 및 체크카드 개설 안내 등

☐ 선정자 필수 제출서류 접수

- 접수기간 : **심의결과 발표일 ~ 2024년 4월 11일(목) 14:00**

- **문학분야**_서울 거주 또는 서울 기반 활동 증빙자료(3개 중 택1)

- ① 주민등록등본(1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② 서울 소재 문예지 발표실적(1건): 문예지 표지 사본, 작품제목, 작가명이 명기된 목차 사본
- ③ 서울 소재 출판사 발간실적(1건): 발간책자 표지, 출판사 주소가 명기된 판권지면 사본

- **연구분야 및 온라인 발표**_서울 거주 또는 서울 기반 활동 증빙자료(3개 중 택1)

- ① 서울 거주 예술인: 주민등록등본(공모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② 서울 소재 예술단체: 서울소재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공모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 ③ 서울 기반 활동: 서울 내에서 발표한 예술(연구)활동 등 프로젝트 관련 발간물 등 증빙자료(자료 내 신청 주체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jamsil@sfac.or.kr)

- **제출기한 미준수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이 취소**되며 예비 선정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사업 포기 신청

- 신청기한 : **심의결과 발표일 ~ 2024년 4월 16일(화)**

- 선정된 개인/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동일 사업으로 타 기관 중복선정 된 경우, 2024년 4월 16일(화)까지 사업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 포기신청 시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이메일 송부

※ 위 신청기한 이후 사업포기를 하는 경우, 차년도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심의 결격사유에 해당됨. 단, 재단이 인정하는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함.

☐ 문의

- 문의처: 02-423-6680 / jamsil@sfac.or.kr
(월~금 9:00~11:00, 13:00~17:00)